

참으로 어려운 감사

거의 30년 전 시카고에서 LA(로스엔젤레스)로 이사를 가다가 잘못 사람을 만나서 이삿짐 전부를 잃어버린 일이 있었다. 긴 이야기라서 지금 여기에 글로 적을 수 없지만 그 일 후 가진 것이 없던 우리 가정에 이제는 진짜 아무 것도 없는 형편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어린 두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급한 대로 여기저기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용품들을 구하고 또한 새로 구입해서 방 두 칸 아파트에 채워 넣었던 일이 있다. 그런 일 후에 내 마음 속에는 많은 것이 필요 없고 꼭 필요한 것만 구입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생각 같이 되지 않았다. 30년이 지난 지금에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 방 3칸 집에 다 채워 넣고도 자리가 모자라서 차고에 짐을 쌓아 놓아 자동차를 주차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대화를 하다가 모든 짐을 정리하고 아주 간단하게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자고 자주 다짐하지만 그것도 아직은 쉽지 않다. 이 이야기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부자이고 많은 것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고 채워주셨다는 말이다. 그래서 돌아보면 부족한 것이 없다. 10년 만에 꺼내어서 사용할지언정 필요를 따라 구입한 것들이 항상 내 주위에 있었다. 이것을 하려고 해도 또한 저것을 하려고 해도 필요한 것들이 전부 집에 있다고 해도 거짓말이 아니다. 그렇게 많다. 그만큼 풍부한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주시고 또한 쌓아놓고 산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감사의 문제다. 그렇게 많은 것을 쌓아 놓고 살아도 그것에 대한 감사함이 철철 넘치지 않는다. 왜 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에 대한 생각이 무디어졌기 때문이다. 전부 없어졌을 때에 옆 사람이 작은 것을 하나 빌려 주어도 감사했는데, 언제고 사용할 수 있도록 쌓아 놓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 것이다. 우리 모두 집에 3주치 먹을 쌀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가? 만일 그 쌀이 없다면 언제고 살 수 있는 돈이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에 능력 생긴다고 하신다. 감사가 믿음의 지름길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대화방이라고 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6장 17-18절)라고 말씀 하시며 생명을 얻겠다고 하신다.

본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해야 한다. 그런데 반대로 축복을 받을 때에 감사에 게을러진다면 그것은 온전치 않은 것이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자. 너무 많지 않은가? 그것이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자.